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

“한국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일시 | 2025년 5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종로구 연지동)

내용 | 참가자 발언 및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소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

“한국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Ⅰ 발간일 2025년 5월 9일

Ⅰ 편 집 이명진

Ⅰ 디자인 김현아, 윤동혁, 이명진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

Ⅰ 사회 - 이명진 (기윤실 간사)

Ⅰ 내용

기자회견 취지 소개

-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4p

발언1. “한국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합시다”

- 이상민 (기윤실 공동대표, 변호사) 6p

발언2. “기독교시민은 갈등 해소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섭시다”

- 천윤석 (기윤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 전문위원, 변호사) 8p

공명선거운동 내용소개1. TPV 캠페인

- 김현아 (기윤실 사무처장) 10p

공명선거운동 내용소개2.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 윤동혁 (기윤실 간사) 11p

Ⅰ 질의 응답

[취지문]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 취지문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해 2년 앞당겨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로 마감되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흔히 선거를 “총칼 없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선거 때가 되면 총칼과 같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 당선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선거는 한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다 꺼내놓고 가능한 다양한 해법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되 이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그 치열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고 맥이 빠진 느낌입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온신의 힘을 다해 전쟁을 하느라 진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에 의한 12.3 계엄은 그 불법이 너무도 명백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한 마음으로 단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당이 내란을 옹호하며 탄핵을 방해하더니 이후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극우 세력을 형성해 대치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 행사를 위시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윤 대통령의 통치 기반이었던 검찰, 그리고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 계엄에 대한 단죄를 방해하고 내란을 이어가려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이 땅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내팽개쳐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신의 힘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판결로 인해 지금의 대통령 선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막상 대통령 선거에 쏟아야 할 정치적 에너지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의 선거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져 버린 민주주의의 기초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비상계엄 이후 여러 헌법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들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사적인 욕망과 정치적 이념을 위해 휘두르는 것과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와 순복을 하지 않고 극단적 진영의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것을 경험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치러지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며, 극단적 분열이 아닌 법과 민주적 절차를 따른 합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와 역사 앞에서 이러한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 공명한 선거와 민주주의 회복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 교회가 이번 대선에서 교회부터 선거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전체 사회가 선거법을 지켜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또 이번 선거가 극단적 분열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정병오

[발언 1.]

한국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합시다

이상민 (기윤실 공동대표, 변호사)

한국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합시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기윤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한국교회에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설교나 기도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어떤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므로, 한국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에는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유신독재와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앞장서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손에 묻히고 집권한 독재자를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빛나는 역사는 본받아야 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는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시도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회자들의 설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각 영역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대한 발언은 부정확할 수 있고, 오히려 교회 내에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국은 독재와 폭력의 시대로 퇴보할 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다시 공고히 하고,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바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는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한국사회의 시민인 한국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시다. 

[발언 2.]

기독교시민은 갈등 해소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섭시다

천윤석 (기윤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 전문위원, 변호사)

우리나라는 몇 달째 전에 없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세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은 두 번째이지만, 이 정도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시작은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 후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서부지방법원 난동, 대통령 구속 취소, 대통령 파면 결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국은 롤러코스터를 타며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던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상식을 무너뜨렸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들은 사적,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헌정질서를 가볍게 내팽개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담함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유명세를 탄 일부 목사들은 앞장서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광장에서 기독교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 구호를 외치는 집회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집회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관용 대신 독선과 불통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민주주의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이 다를 때에는 서로를 설득하고, 그래도 의견이 좁혀지지 어려우면 정해진 룰에 따라 전체의 의견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폭력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사랑과 관용은 우리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적대감에 찬 거친 언사, 상대방을 척결하

겠다는 공격적인 태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민주 시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수렁으로 빠져갈 때 오히려 더욱 수렁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용기를 낸 고마운 시민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야 하되,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부정의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출발점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TALK PRAY VOTE 캠페인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다양한 질문으로 이야기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정치가
되기를 기도하며, 시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김현아 (기윤실 사무처장)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 사회에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만들고 한국 교회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독려하며 기독교 시민들의 책임있는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창립 초기부터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오는 6월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 소추, 헌법 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이 정국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고, 우리 공동체는 불신과 분열로 여전히 큰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선거를 앞두고 깊은 소통과 이해, 간절한 기도, 신중한 투표를 돕기 위해 <TALK PRAY VOTE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 시민들은 <TALK PRAY VOTE 소책자>를 활용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TALK>파트에서는 ①헌법과 민주주의, ②주권과 권력, ③후보와 선택, ④한국 사회의 당면과제, ⑤교회와 공동체 등 5개 영역에 대한 토론거리를 제시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질문과 대화를 생각해보며 성찰과 분별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PRAY> 파트에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드리는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이를 참고하며 각자의 고백과 소망,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도를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VOTE> 파트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각 항목을 통해 국가수반으로서의 비전과 역량, 그간의 공적과 주요 공약, 약자와 불의에 대한 태도, 도덕성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교회, 성숙한 기독교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TALK PRAY VOTE 캠페인>에 동참하여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다양한 질문으로 이야기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정치가 되기를 기도하며, 시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TPV 캠페인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 TPV(Talk Pray Vote) 캠페인 온라인 배포용 자료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emk.org/resource/41331/>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정리해 교회에 제공하고,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모니터링해 선거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윤동혁 (기윤실 간사)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윤실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은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첨예한 이념 갈등과 한국 교회의 편향적 정치세력화로 인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한국의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데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정직과 감사의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1. “선거법을 지키는 교회”

교회가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교회에 제공합니다. 기윤실이 지금까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정리해온 교회 관련 공직선거법 내용에 이번 21대 대선의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반영해 정리하고, 이를 포스터로 제작해 기윤실 회원교회와 관심교회 등 총 350여 교회로 발송해 활용토록 합니다. 해당 포스터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와 뉴스레터 등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이 바른 선거법에 대해 이해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2. 공명선거 모니터링단 운용

주요 교회의 예배와 설교, 광고를 모니터링해 선거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10명 내외의 모니터링단이 감시 활동을 합니다. 특히 교회 내 직무를 이용해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비방하는 언급을 하거나 비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모니터링될 경우 해당 교회에 경고문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선관위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 포스터는 p.12를 참조해주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

"선거법을 지키는 교회"

예배 WORSHIP



-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교인인 후보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급조해 기도/간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말 WORD

-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단,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5/12~6/2)에는 교회 안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무를 이용한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금지됩니다.



헌금 OFFERTORY

-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후보자가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교회에서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뽐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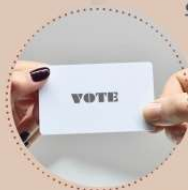
통신 COMMUNICATION

-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기부 DONATION

- 후보자가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개별물품이나 포장지에 이름이나 정당 표시는 금지됩니다.



명함 NAMECARD

- 선거운동(5/12~6/2) 기간 전에 교회 옥내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에는 교회 내 배부도 가능합니다.



사진 PHOTO

-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 사용은 금지됩니다.

※기윤실은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주세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모두 '후보자'로 표기했습니다.
- 문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02)794-6200, cemk@hanmail.net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